



고대안산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NEWS

MAY / JUNE, 2016

발행 | 06월 02일 · 격월간 · No.58

발행인 | 차상훈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 전화 | 1577-7516 · Fax | 031)412-5659 · 홈페이지 | <http://ansan.kumc.or.kr> · 발행일: 06월 02일 (격월간)



고대안산병원, 서해안 거점병원 발돋움 가속화

올 8월 진료지원동 착공, 830병상 가동 박차
안산 및 시흥 개발기대감 발맞춰, 병상증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2016년 8월 진료지원동 착공을 통해 830병상으로 증설되며 응급의료센터와 수술실, 중환자실확장으로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를 발판으로 함께 성장하는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대형병원이 서울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안산, 시흥이 개발되고 발전을 시작하던 시절부터 지역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를 제공하는 대표병원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왔다.

지난 2012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재지정 됨에 따라 지역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승격하면서 그 역할은 확대됐지만, 100만 여명에 달하는 안산 · 시흥 지역주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게다가, 시흥지역의 배곧신도시가 계획됨에 따라 서남부 지역발전에 따른 의료수요 또한 꾸준히 상승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4월 기존 지상 9개 층으로 구성된 본관건물에 3개 층을 증축한 바 있다.

진료지원동 신축으로 830병상 오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오는 8월에 진료지원동을 착공하여 완공하게 되면, 기존 710병상에서 830병상으로 늘어나 현재의 병상부족 현상을 해소할 전망이다. 현재 증축이 완료된 본관 13층은 행정부서와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 진료부서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13층을 병실로 전환하여 약 120병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축과 함께 늘어나는 병실은 환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구성되며, 국내 유수의 병원들과 견줄 수 있는 양질의 병실 환경을 갖추게 된다. 

2페이지에서 계속

How to contact 고대안산병원

- 전 화 예 약 - 진료예약센터 : 1577-7516
예약시간 :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3:00
- 인터넷예약 - 홈페이지(ansan.ku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예약일정이 확정되면 진료일 전날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 진료협력센터: 031) 412-5103 ● 응급의료센터: 031) 412-5381 ● 건강증진센터: 031) 412-5865



고려대학교 병원 모바일웹 접속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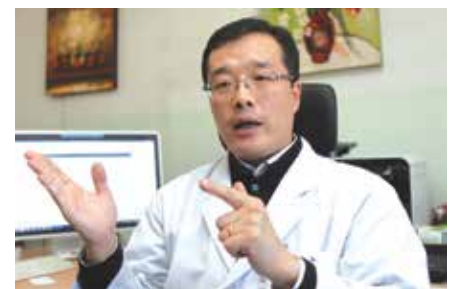
P3 전문 진료과 소개

직업환경의학과



P5 의료진 활동

한창수 교수 국책과제 수주



P6 단신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P7 건강 정보

여름감기 주의보



P8 IQON-CT 도입

IQON-CT 도입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빠른 진료를 위한 시스템구축

환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병실과 외래 공간 확보

앞으로, 단계적으로 13층을 병실로 전환하여 약 120병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축과 함께 늘어나는 병실은 환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구성되며, 국내 유수의 병원들과 견줄 수 있는 양질의 병실 환경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 외래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의 화합과 환자중심 진료의 발판을 마련하여 환자에게 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보다 편리하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질환별 센터화와 다학제 협진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진단,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진료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진료지원동 신축 및 응급의료센터 확장

올해 8월 착공하는 진료지원동은 본관과 별관 사이의 공간에 들어서게 된다. 총 7개 층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공간에는 1층과 2층에 응급의료센터를 확장 하면서 소아응급실을 마련함과 동시에 응급중환자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응급의료센터와 중환자실을 동시에 구축하게 되어, 응급환자의 전문화된 집중치료를 실현해 경기 서남부 광역 응급의료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3층부터 7층에는 교수연구실과 의사숙소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환자실 확장, 수술실 확장을 통한 전문화된 진료 마련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중환자실 및 신생아집중치료실의 확장이 계획되어있다. 현재, 서남부지역 유일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전문화된 치료가 요구되는 환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수술실 확장과 함께 지역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의료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아 암치료에 있어 서울경기 지역 최고수준의 실력을 검증 받은바 있다.

또한, 경기 서남부 지역 병원 중 유일하게 조혈모세포 이식센터를 지정받아 백혈병치료에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센터는 이식을 위해서 혈액종양 전문의 뿐 아니라 치료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거의 모든 과에 걸친 의료진과의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무균병실 등 시설도 완비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수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암치료기, 로봇수술 등 첨단 의료장비를 구축하여 암환자를 비롯한 우수한 의료진에게 진료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좁은 공간에서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팔이, 흔들리거나 떨리지 않고 정밀하게 움직여서 암이 있는 부분을 절제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복강경이나 내시경과 달리 수술 부위의 영상을 3차원으로 보여주고 실제보다 2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더욱 섬세하게 수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번 진료지원동이 완공되면, 120병상가량 늘어나게 되어, 환자에게 더욱 빠르고 쾌적한 치료가 이뤄지고, 보다 효율적인 병원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보여 환자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병원은 내다보고 있다.

봄처럼 눈부신 자원봉사자들의 힐링 야유회



봄처럼 눈부신 자원봉사자들의 힐링 야유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5월 2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화담숲’에서 자원봉사자 야유회를 개최했다.

의료사회사업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병원 자원봉사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병원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21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해 그 동안 환자들을 위한 땀방울을 잠시 뒤로 하고 자연을 마주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산업의학의 선두주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각종 직업과 환경에 따른 장해 예방을 위한 노력

직업환경의학과는 박종태 교수가 1999년 부임하여 산업 의학과(센터) 개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의학과는 진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된 2011년 이후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개설 이래 ‘지역보건의료연구실’을 열고 각종 직업,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며, 더불어 관련 질병에 따른 장해와 신체장애를 평가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진료의 경우 직업 및 환경 관련 질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단·치료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직업환경의학 클리닉’은 직업병과 환경 관련 질환 분야에 걸쳐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여, 산업현장의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유해 인자에 의한 건강 장해를 진단·치료하고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말핵산 중독사건, 메틸렌클로라이드 중독사건, 안산 지역 대기오염 등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중심에서 환자 진단 및 치료, 재활, 그리고 사회적 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사·정 간의 갈등이 첨예한 직업병 및 산업재해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센터’를 개소하여 임상과로서의 진료는 물론 건강진단팀, 보건관리대행팀, 작업환경측정팀, 분석팀을 운영하며 건강검진, 보건관리 대행, 작업환경 측정, 유해물질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2001년 8,657건을 시작으로 2014년 14,473건, 특수건강진단은 2001년 1,338건에서 2014년 7,565건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지역 내 유일한 대학병원의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과 보건관리 대행도 2001년 이후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며 지역 산업안전 보건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11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권을 획득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지원 등 기초산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산 지역주민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안산시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직업환경의학과를 이끌고 있는 박종태 교수는 2012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센터 운영을 인정받아 고용노동 부장관으로부터 ‘산재예방의 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산재보험제도 정착 등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직업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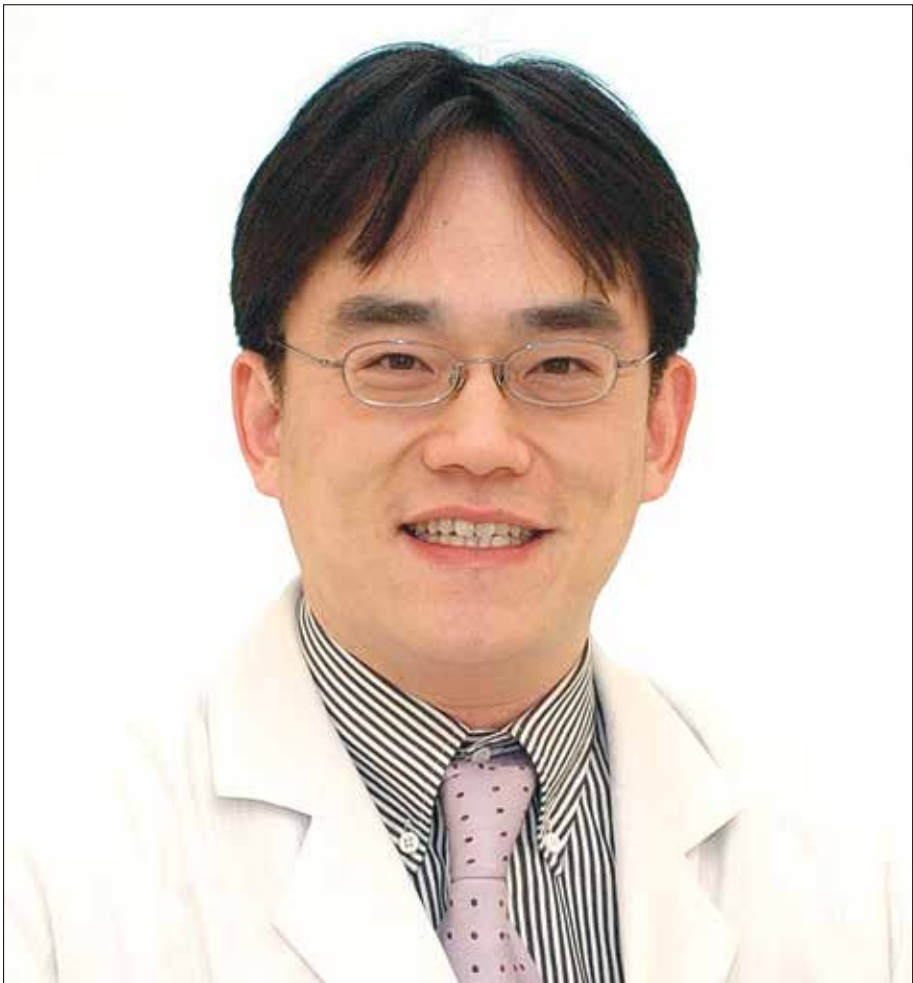
직업환경의학과는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안산시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고 있다. 최근 연구과제로는 2012년에 시멘트공장 주변인 총복 제천 지역 주민건강 조사를 실시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진폐증환자에게 진료·치료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사후관리와 효율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작업강도 및 생리적 변화 분석’ 연구 (2014년)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DB를 구축하여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강릉시 마그네슘 제련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건강 영향과 환경오염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연구 (2015년)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산시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 (2013년)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도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안산시의 다양한 지역사회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사업추진의 전략과 사업모형 개발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직업환경의학과는 2003년 1기 장규진 전공의 이후 2015년 현재 11기 12명의 전공의가 입국하여 활발하게 수련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문의 취득 후 각 분야로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직업환경의학교실’을 출범시켜 지금까지 각 분야로 우수한 인력을 진출시키고 있다. 향후 직업환경의학과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우수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인력을 계속 양성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인 직업환경의학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직업환경의학과 주요연혁

- 2000 산업의학과 개설
박종태 교수 초대 과장 취임
- 2001 김일룡 임상강사 발령
- 2002 전형준 임상교수 발령
- 2003 김병권 임상교수 발령
안산병원 산업의학교실 개설
- 2007 박종태 교수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연수
- 2010 고재우 임상교수 발령
- 2011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 변경
박종태 교수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개설
박종태 교수 안산시 고혈압당뇨등록 교육센터 위탁운영
- 2012 김대성 임상교수 발령
박종태 교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의 달인’ 선정
- 2014 박종태 교수 산재보험 50주년 유공자 국무총리표창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치료법은?

대학병원 류머티스내과에 근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류머티스 관절염이 발병하는 연령은 평균 50세 전후다. 여성에게서 특히 많다. 야속하게도 자식들을 어지간히 키우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갱년기 즈음에 찾아온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건강검진에서 ‘류머티스인자(RF)’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잔뜩 걱정하고 와서는 어떤 종류인지 얼굴만 보고 판정해 주기를 바란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전 세계 인구의 1% 정도가 앓고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국내엔 약 28만 명(2014년 기준)의 환자가 있다. 환자 대부분이 40~70대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이 증가하는 나이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 이내에 발견해 치료해야 관절 변형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를 막을 수 있다. 류머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을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다.

류머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손과 발의 작은 관절, 특히 손가락 중간 마디가 붓고 아픈 증상이다.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주먹을 쥐기 힘든 증상도 나타난다. 뻣뻣함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움직일수록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류머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크다. 발열·피로감·식욕부진 등 전신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류마티스 질환은 심장 같은 주요장기가 손상돼 치료하지 않으면 당장 생명을 위협받는 식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되고 그러다 끝내 관절이 손상되고 뼈가 굳고 못 쓰게 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에 임하면 미혼 아가씨의 경우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손가락 중간마디 붓고 아프면 의심

류머티스 관절염은 류머티스인자 한 가지로 진단할 수 없다. 관절 진찰과 염증 수치, 항ccp 항체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고령 환자들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동반 질환이나 합병증 관리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류머티스내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류머티스 관절염의 치료 목표는 염증을 없애고 관절 손상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치료 경과가 좋다. 약물치료는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 항류머티스제제 등 먹는 약으로 주로 치료한다. 치료는 초기 1~2년 염증 진행기에 가장 중요하다.

장기간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 6개월 이상 경구약 치료에도 효과가 부족하다면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이 약들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아직까지는 완치하기 힘든 질환이다. 하지만 질환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물치료로 관절 손상과 변형을 예방하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류마티스 질환 발병률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남편이나 자식들의 치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정작 본인들의 질병 치료에는 돈 아까워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류머티스 관절염에는 약이 없다’는 속설을 믿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맹신하다가 병이 나빠지고 관절 손상이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

류마티스내과 최성재 교수

류마티스내과 분과 전문의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연수
대한 내과학회, 대한 류마티스학회 정회원

전문분야

류마티스 질환

진료시간

오후(월) 종일(수) 오전(목)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수면위로 부상하다.

‘여성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전형적인 문제 마 범죄”라고 밝히면서 조현병 환자 관리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거세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34)가 겪고 있는 조현병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 비정상적 정서 체형, 망상과 환청 같은 증세를 보인다. 환자들은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현병 진료 인원은 2010년 약 9만4000명에서 2014년 약 10만4000명으로 10.6% 증가했다. 발생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수치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환자 수여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1% 정도가 조현병 환자라는 의학계의 분석 결과로 따지면 국내 환자는 50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는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병원 외에 제3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까지 동의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입원의 적합성 심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 것도 강제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한창수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곧바로 입원시키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잘 의논해서 현실적이고 안전한 시행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 극단적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결과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조현병 환자 중 10~20%는 약물치료로 상태가 크게 좋아지고, 20~30%는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삶 유지가 가능하다.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처럼 조현병 환자들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인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우울장애와 약물치료에 대한 국책과제 수주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韓昌秀) 교수가 최근 국책과제를 수주하며 임상에서만 아니라 연구 역량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우울장애에서 쉽게 나타나는 불안 증상 및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를 표준화하여 이를 토대로 현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제 및 다양한 약물을 이용한 보조 치료법의 효과를 서로 다른 약물 치료와 비교하고 치료 이후의 경과를 관찰하며 경제성을 평가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불안증상과 건망증이 많은 한국인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창수 교수는 “이미 연구팀에서는 우울증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여 수십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고, 특히 불안 증상이나 건망증 등의 인지기능저하를 동반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고유의 우울증의 증상에 따라 서로 다른 약물치료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에게는 효과적인 치료적 방법을, 환자들에게는 경제적이고 부작용 없는 치료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국민건강임상연구과제 우울증 근거생성연구사업’에 한창수 교수의 ‘불안 및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우울증 환자의 치료적 전략: 전향적 단계별 임상연구’ 연구가 채택되었다. 연구책임자인 한창수 교수는 정부로부터 향후 3년간 총 8억 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미국 듀크대학교대학원 졸업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노인정신의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학회 정회원
세계노인정신의학회 국제대회 사무총장
대한정신약물학회 오츠카 학술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GSK 학술상 수상

전문분야

우울증, 스트레스장애, 기억력 장애, 치매

진료시간

오전(화) 오전(수) 종일(목)



임상간호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2016년도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학술대회 성황리 종료!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부장 이경진)는 5월 26일(목) 오후 3시 30분,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16년도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차상훈 원장, 송효성경영관리실장, 이경진 간호부장을 비롯해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장 등 외부인사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차상훈 원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사 여러분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임상간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술대회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그 동안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논문이기에 더 뜻 깊고 실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간호학술대회는 각 병동을 대표하는 발표자들의 논문발표와 각 2명의 사례연구와3명의 학위논문 발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표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많은 청중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으며 노력의 결실을 차분히 발표했다. 청중들도 이에 화답하듯 발표자들의 연구 내용을 경청하며 응원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심사위원의 심사숙고 끝에 발표된 최우수상은 “냉수, 생리식염수, 아로마 가글링이 안면골절 수술 환자의 갈증, 구강상대 및 인후통에 미치는 효과 비교”에 대해 연구한 101병동에게 돌아갔으며 “복부 수술환자의 수술 전 blow bottle을 이용한 심호흡 운동이 수술 후 폐합병증 예방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73병동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경진 간호부장은 총평에서 “모든 연구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질 높고 우수한 연구결과였다.”고 말하면서 “바쁜 와중이지만 앞으로도 임상간호연구에 힘을 쏟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야호! 어린이날 선물이다!
안산병원 교직원
어린이집 방문해 어린이날 선물 전달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5월 4일(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송효성 경영관리실장, 이경진 간호부장, 권춘기 총무팀장은 교직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어린이날을 축하했다.

교직원 자녀 50여명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 어린이들은 본인들의 키만큼이나 커다란 선물을 받고 기뻐했으며 5월 8일 어버이날을 미리 챙기는 의미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감사카드와 음료수를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경진 간호부장은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나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항상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선물을 받은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함께 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하트표시로 감사의 말에 화답했다.📌



지역과 함께한 고려대 안산병원 외과의 도약
‘고려대 안산병원 외과 발전 워크샵’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 외과는 5월 13일 ‘외과 발전 워크샵’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워크샵은 ▲안산병원 외과 발전 동향, ▲외과 환자 간호관리의 개선 방안, ▲외과 발전을 위한 진료협력 개선 방안, ▲외과 인력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특히 외과 뿐 아니라, 간호관리를 위한 간호부, 환자관리를 위한 행정부서 등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하여 고려대 안산병원 외과의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차상훈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과는 안산지역이 개발되고 발전을 시작하던 시절부터 지역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성장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외과수술을 통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왔다.”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의학의 발전과 환자 쾌유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해주신 모든 구성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말했다.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종의 구성원이 세션별로 진행하며 외과의 발전동향과 함께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성공리에 마쳤다.

고려대 안산병원 외과는 앞으로도 최신 의학의 교육과 임상으로 이어지는 발전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단결된 역량을 도출해 냄으로서 대한민국의료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한 계속된 노력!!
Omics 심포지엄 개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19일 소강당에서 ‘2016 Omics in Precision Medicine Symposium’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은 New era of precision medicine (안산병원 신철 교수), Transcriptomics, Epigenetics (지노믹트리 김철홍 박사)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세션으로 Genomics (한림대학교 조운신 박사), Proteomics (고려대 인간유전체연구소 이승구 박사), Metagenomics (명도메디컬 김윤근 박사) 등의 발표로 Omics에 대한 폭 넓은 적용과 그에 대한 연구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차상훈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려대 안산병원은 의과학 연구회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 Omics 심포지엄은 고려대 안산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연구진행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를 공유하여 함께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지역유일의 연구혁신 대학병원으로서 경기테크노파크, 전기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연계하는 등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네트워크 및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컨 바람에 일교차에 늘어드는 여름 감기 겨울 감기보다 더 지독!!

여름 감기의 경우는 주변 환경 때문에 겨울 감기보다 오래 갈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 다른 심각한 질병이 감기로 잘못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감기 증세와 함께 설사,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바이러스성 장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바이러스성 장염은 탈수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이 바짝 마를 수 있고 근육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 콧물이 계속 나는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 일 수 있으며, 목이 붓고 기침이 지속한다면 후두염, 기침이 심하다가 가슴통증이나 객혈, 전신피로, 체중감소 등이 동반되면 결핵을 의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어린 아이들은 뇌수막염이 감기와 유사하게 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감기처럼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가 이후 토하거나 목이 뻣뻣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이 혼탁해지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의 몸에서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면 단순 감기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쉽지만 두통,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심해진다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감기는 호흡기 질환의 일종이다. 일교차가 커지면 기온에 대한 신체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자칫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외출 시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하고, 예방 차원에서 위생관리 역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외출 후 손 씻기뿐만 아니라 기침이 되면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이며, 먼지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육류섭취도 중요하지만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 과일 섭취를 통해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경우 어린이 집이나 유아원에 다니면서 단체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상태를 자주 체크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가벼운 운동 역시 신체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알맞은 강도로 하고, 땀이 난 경우는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갑작스런 복통과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의심해봐야

갑작스런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은 다양하지만 특별한 이상을 찾을 수 없는 질병중 하나는 바로 과민성대장증후군입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일종의 기능적 소화관 이상으로 대장의 기질적 이상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복통을 느끼거나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민성대장증후군은 모든 소화기질환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전체 인구의 15%정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아직까지 확실한 이유가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의 운동이상이 장의 감각기능 이상, 심리적인 스트레스, 급성 장염 등 다양한 원인이 과민성대장증후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만성적인 병이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지만 자신에게 맞는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증세를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해 장에 부담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변비 증상이 있는 경우 섬유소가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것이 좋으며 지방질의 음식 섭취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개선과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데 약물은 대장 운동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심한 복통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 복부 팽만의 증상 등에 치료를 하여 장운동을 정상화 시켜 증상을 개선시키며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도움말 :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구자설 교수



미세먼지가 중이염 유발!! 코를 통한 귓속 염증 키운다.

우리 몸속으로 유입된 미세먼지가 중이염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미세먼지에 의한 귓속 염증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표피세포에 다양한 농도에 미세먼지를 노출시켜 생존능력의 변화를 관찰 한 결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 생존력은 떨어지고 낮은 농도에서는 올라갔다.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최대 40배까지 염증유전물질을 만들어 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중이염은 3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서 80% 가량이 한번쯤은 경험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바이러스 또는 세균감염을 포함한 선천성 기형, 이관기능 장애 등과 같은 선천적인 원인과 흡연, 오염된 공기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미세먼지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지수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이 코 속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다.☞

도움말 : 고려대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



하루 커피 3잔으로 사망률이 절반으로 뚝! 치매예방 효과도

지난 2013년 커피의 국내 생산량은 약 65만 톤이며,5년전에 비해 63%가 증가했다. 또한 주당 소비 빈도가 가장 많은 음식은 커피(12.2)로, 한국인 1인당 하루 커피를 2잔씩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안산병원 유전체 연구소 신철 교수는 안산·안성시에 사는 40~69세 남녀 8075명을 12년간(2001~2012년) 추적조사한 자료를 이용, 커피섭취와 사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성·비만도·교육정도·흡연·음주·고혈압·당뇨병 등 사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모두 고려(보정)해도 커피를 하루에 3잔 가량 마시는 사람의 사망위험이 1잔 미만 마시는 사람의 절반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커피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클로로겐산 등 폴리페놀이 풍부하다. 심혈관질환·당뇨병·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의 예방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그래서다. 하지만 커피엔 각성 물질인 카페인이 함유돼 있으므로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이나 청소년·노인·임산부 등은 과다 섭취를 삼가야 한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

IQON-CT

1. 한번의 스캔으로 CT영상 뿐 아니라 인체 내부 조직의 구성물질 정보를 담은 스펙트럴 데이터 획득
2. 불필요한 재촬영으로 방사선 추가 노출 개선
3. 기존 CT에 비해 방사선 노출 감소 및 수준 높은 영상 제공

